

## 전후 영국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재현’\*

— *Hemlock and After* (1952)와 *The History Man* (1975)을 중심으로

황 정 아\*

### [초 록]

지식인을 ‘재현하는 인물’로 본 에드워드 사이드의 논의를 참고하면, 지식인은 자신의 대의와 이념을 재현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자기재현을 통해 당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들을 재현하는 존재이다. 이 논문은 20세기 중후반 영국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재현’을 중심으로 전후 영국사회의 주된 면면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구체적으로는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한 『독을 마신 후』(*Hemlock and After*)와 『히스토리 맨』(*The History Man*)을 살핀다. 『독을 마신 후』는 복지국가가 정착되는 사회적 합의의 시기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저명한 원로 문인 버나드 쇼의 자기재현과 그 실패를 통해 영국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내적 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327-2009-1-A00682).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주제어: 지식인, 재현, 전후 영국소설, 복지국가, 자유주의 휴머니즘, 장기 60년대, 급진주의, 대학소설

Intellectual, Representation, Post-War British Novels, Welfare State, Liberal Humanism, Long Sixties, Radicalism, Academic Novel

경과 한계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 『히스토리 맨』은 장기 6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문화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급진주의 지식인 하워드 키크에 대한 풍자를 통해 전달한다. 두 소설을 함께 읽을 때 양 시기 사이에 일어난 영국사회의 역사적 변화가 확연히 드러남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대(對) (반자유주의로서의) 급진주의가 일종의 지적인 폐쇄 회로라는 사실도 분명해진다.

## 1. ‘재현하는 인물’로서의 지식인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유통되던 ‘지식인’(intellectual)이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사어(死語)가 되었을 뿐 아니라,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어떤 암묵적 합의에 따라 사망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부득이 이 표현을 소환할 때 동반되는 민망함과 조소의 쓴맛이 그 증거다. ‘지식인’이 그저 지식이 많은 이를 지칭하는 말이기만 했다면 인기에 이은 죽음이라는 운명의 급변을 맞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듯 미련 없이 잊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작용해야 한다. 하나는 당사자인 지식인 스스로가 맡은 소임을 지속적으로 방기하거나 배반하는 것, 또 하나는 지식인에게 맡겨진 해당 소임 자체가 사라졌거나 더 적절한 다른 주체에게 돌려지는 것. 전자는 역사를 통해 적합한 사례들을 실명과 더불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후자라면 ‘집단지성’이라는 근래의 조어를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지식인 개념의 역사를 짚은 글을 참조하면 ‘intellectua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기재된 것은 17세기 중엽에 와서지만, 이 근대 개념의 의미를 바탕으로 역사를 거슬러 관련된 의미망을 추적할 수는 있다. 이를테면 플라톤이 소피스트를 비판하며 제시한 철학자상(像)이나 수도원을 대체하여 지식생산의 본거지로 부상한 대학에서 활동한 교수들이 고

대와 중세를 대표하는 ‘지식인’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식인이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의식하고 또 그런 자기의식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역시 이 개념의 적절한 소속은 근대로 보아야 한다. “지식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언론을 통해 “‘지식인’이라는 단어가 크게 부각”된 기점으로 흔히 지목되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1894년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이다. 이 유명한 “사건을 계기로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지식인이라는 단어가 도처에서 사용되었”고 “대중의 생활에서 지식인 집단의 개입이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던 것이다.<sup>1)</sup> 이후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이나 사르뜨르의 ‘보편적 지식인’, 부르디외의 ‘자율적 지식인’ 같은 논의들이 지식인 개념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참된’ 지식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던 반면, 리오파르와 드브레 같은 논자들은 각각 지식생산의 조건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혹은 지식인이 비현실적인 언어로 현실을 호도하여 스스로를 배반했다는 이유로 지식인의 종언을 말하기도 했다.<sup>2)</sup>

지금에 와서는 기대든 비판이든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했거나 더는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도 못하는 처지지만, 지식인을 두고 “재현하는 인물(a representative figure)”이라 칭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언급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에 따르면 ‘재현하는 인물’이란 “어떤 종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대중에게 명확한 재현을 행하는 사람”이며, 지식인은 그와 같은 “재현하기의 기술(the art of representing)을 소명으로 갖는 개인들”이다.<sup>3)</sup> 이 정의에서 지식인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지목된 ‘재현’은 일차적으로 지식인이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이념을 적절히 표현하는 문

1) 이성재, 『Vita Activa 개념사: 지식인』 (책세상, 2012) 44, 49면.

2) 같은 책 3장 “현대의 지식인론” 참조.

3) Edward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The 1993 Reith Lectures* (New York: Vintage, 1996) 12-13면.

제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식인이 행하는 재현에는 이런 ‘자기재현’ 말고도 여러 겹의 차원이 존재한다. 싸이드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재현적(representative)인가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그들의 역할을 처음으로 묘사한 19-20세기 소설들을 들고, 특히 푸르케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플로베르의 『감정교육』,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같은 소설들을 통해 “[이 소설들에서의] 사회현실에 대한 재현이 새로운 행위자인 현대의 젊은 지식인의 등장으로 크게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결정적으로 변한다”(14면)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렇게 본다면 싸이드가 말하는 지식인의 (자기)재현에는 궁극적으로 그 재현을 매개로 한 사회현실의 변화 및 그에 대한 재현이라는 다른 층위가 겹쳐지는 셈이다.

실상 싸이드가 일차적으로 의미한 지식인의 (자기)재현에 이미 사회현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지식인의 재현은 독백의 형식이 아니라 사회와 대중을 ‘향한’ 재현이며 나아가 사회와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입장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인의 재현, 곧 사회를 향해 대의와 이념을 표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아를 강화하거나 지위를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강력한 관료제 내부에서나 너그러운 고용주에게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도 아니다”(20면). 싸이드에 따르면 지식인이란 대의와 이념을 재현하되 “비판적인 감각, 즉 손쉬운 공식이나 기성의 클리셰, 혹은 권력이나 관습이 매끄럽게 요리조리 맞춰가며 확인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감각에 자신의 전 존재가 걸려있는” 인물로서 그렇게 한다(23면). 싸이드에게 지식인은 곧 ‘비판적’ 지식인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참된’ 지식인을 정의하고자 했던 이론가들의 계보를 잇는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에게 비판적 특성을 전제하기 힘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비판적이라 한들 지식인이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워진 시대라 해도 지식인을 ‘재현’의 견지에서 정의한 싸이드의 시도는 여전히 참조할 만하다. “언어를 잘 구사하는 법을 알고 또 언제 언어에 개입해야 하는지

를 아는”(20면) 지식인의 특성은 자신이 가진 대의나 이념을 잘 표현하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살아가는 당대 사회의 실상과 이념 역시 (순응의 방식이든 비판의 방식이든) 잘 표현할 잠재력을 갖기 때문이다. 사이드가 푸르게네프, 플로베르, 조이스의 소설에서 지식인의 재현과 사회의 재현을 아울러 보았듯이, 자신의 이념을 ‘재현하는’ 지식인을 ‘재현하는’ 소설들을 통해 사회의 재현에 접근하는 일은 한 시대를 이해하는 썩 적절한 방편으로 보인다. 지식인은 특유의 ‘재현하는 기술’을 통해 당대 사회의 주요 면면들을 상대적으로 더 또렷이 표현해주며 따라서 지식인을 재현하는 소설은 ‘(자기)재현의 재현’이라는 두 겹의 응축된 재현 기제를 통해 당대 사회의 핵심적인 양상을 감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인이 사회적·문화적 권위나 권력을 완전히 박탈당하지는 않았던 시기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재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representation’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빌리면, 지식인의 재현은 당대 사회의 재현에서 독특한 ‘대표성’을 갖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 글은 그 점에 착안하여 20세기 중후반 영국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재현’을 중심으로 전후 영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그런 영국적 사례가 어떤 현재성을 갖는지 아울러 생각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1952년과 1975년에 발표된 앵거스 윌슨(Angus Wilson)의 『독을 마신 후』(*Hemlock and After*)<sup>4)</sup>와 말컴 브래트베리(Malcolm Bradbury)의 『히스토리 맨』(*The History Man*)<sup>5)</sup>을 살필 것이다. 2차 세계

4) Angus Wilson, *Hemlock and After* (London: Penguin, 1992). 이하 본문에서는 『독을 마신 후』로 지칭하고 이 책의 인용은 괄호에 면수만 표기한다. 원제에 나오는 험락(hemlock)은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배의 성분으로 잘 알려진 독초로서 이 작품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를 받은 고대의 ‘지식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여러모로 연상시킨다.

5) Malcolm Bradbury, *The History Man* (London: Penguin, 1985). 이하 본문에서는 『히스토리 맨』으로 지칭하고 인용은 괄호에 면수만 표기한다.

대전의 여파가 잔존하던 50년대는 흔히 ‘사회적 대타협’(Social Consensus)의 시기로 명명되는바, 전쟁이 끼친 영향과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 주도하에 여러 사회적 쇄신 방안들이 제시되고 이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되던 시기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이전의 문화적 전제들이 사라지고 특히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이 크게 도전 받고 한계를 노정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반면 70년대는 복지국가 체제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낙관적인 분위기였으나 점차 여러 사회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전후의 합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전환이 예고되던 시대였다. 68혁명으로 대표되는 장기 60년대의 일부로 분류되는 70년대 초, 영국에서도 급진적인 사회적·정치적 요구들이 일각에서 제출되었고 문화혁명기라 일컬어질 만큼 적어도 문화면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난 시기였다.

따라서 두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영국사회가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급격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시기는 아니었고 크게 보아 합의에 의한 전후 복구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그 결실도 비교적 착실히 축적되던 때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 사회의 문화적 근간을 이루는 규범과 가치면에서는 한층 근본적인 대립과 단절이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영국사회의 ‘지배 문화’였던 자유주의 휴머니즘이 급격히 영향력을 상실하고 ‘영국적’이라는 규정의 주요 요소로 남아있던 빅토리아시대의 문화적 유산이 비로소 자리를 내놓은 시기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지배적 규범, 가치, 문화의 변화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 지식인의 재현이 각별한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두 소설은 모두 지식인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각각 1950년대 초와 70년대 초 영국사회의 가장 문제적인 지점을 효과적으로 포착한다. 또한 두 작품을 병치할 때 나타나는 두 시기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면 영국사회의 역사적 변화가 확연해지는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독을 마신 후』: 자유주의 휴머니스트의 곤경

2차 세계대전이 영국사회에 미친 충격과 여파는 “전쟁이 끝나면 뭔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리라는 광범위한 정서를 만들어냈고”<sup>6)</sup> 그에 따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자부하던 처칠의 보수당을 누르고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복지국가의 틀이 자리 잡게 된다. 이후 1951년에 다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이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정착된 점이 50년대를 ‘사회적 합의’의 시기로 만든 주된 토대였다.<sup>7)</sup> 전쟁으로 비롯된 “주요 식료품 대부분에 대한 배급이 1954년에야 마침내 끝나”는 등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내핍(austerity)의 기운이 지배적이었으나 “삶의 상상적이고 지적인 면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는 완성될 수 없음”을 공공연히 표명한 노동당의 정책으로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며 예술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sup>8)</sup> 『독을 마신 후』가 소설가로 명성을 확립한 주인공 버나드 샌즈(Bernard Sands)가 지역의 유서 깊은 건축물 바든 홀(Vardon Hall)을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자신의 기획에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재무부 통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연관된다.<sup>9)</sup> 작가 앵거스 월슨을 일컬어 “1950년대 복지국가 리얼리즘(Welfare State Realism)이라는 새로운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sup>10)</sup>이라 한 평가도 떠올리

6) Alistair Davies & Peter Saunders. “Literature, Politics and Society,” *Society and Literature 1945-1970*, ed. Alan Sinfield (London: Methuen, 1983) 13면.

7) 하지만 당시에도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좌우파의 평가가 반드시 우호적이거나 ‘사회적 합의’라는 조화로운 성격을 띤 것만은 아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의 글 23-4면 및 James F. English, *Comic Transactions: Literature, Humor and the Politics of Community in Twentieth-Century Britain* (Ithaca: Cornell UP, 1994) 128면 참조.

8) Arthur Marwick, Arthur, *British Society Since 1945* (London: Penguin, 2003) xii, 53면.

9) 이 작품의 배경은 1951년으로 되어 있으나 정황상 같은 해에 있었던 노동당의 선거 패배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게 되는 도입부이다.

버나드가 이 통보를 “승리”로 받아들이고 “더할 나위 없는 흡족함”(9면)을 누리는 데는 바든 홀을 호텔로 개조하여 유흥과 (나중에 밝혀지지만 미성년자까지 동원하는) 성적 향락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사랑’을 내세워 추문과 범죄를 양산하는 이 구역의 ‘악의 축’ 커리부인(Mrs. Curry)<sup>11)</sup>의 시도를 가까스로 꺾고, 버나드를 유명인사로 존경은 하지만 본능적으로 불신하는 ‘지역 유지들’(the local gentry)의 견제와 냉담에 맞서 얻어낸 지원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승리였음을 감안하고라도 버나드가 음미하는 승리감에는 일정한 과잉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잉을 두고 예술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불순한 동기”(mixed motive)가 작동하고 있음을 일러준다는 해석이 있거니와,<sup>12)</sup> ‘동기’ 문제는 실제로 이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로서 ‘독을 마시는 것’에 해당하는 레스터 광장에서의 결정적인 사건 이후 버나드 자신이 가장 의식하고 천착하는 주제기도 하다.

존경받는 지식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승승장구하던 버나드를 단번에 꺾은 문제의 사건은 겉보기에는 사건이라 할 것도 없는 사소한 해프닝에 가깝다. 어느 저녁 레스터 광장에서 젊은 예술가이자 한때 동성 연인관계였던 테런스(Terrence)를 기다리던 버나드는 라이터를 빌리자며 접근한 청년의 “자신만만한 미소에서 성적인 유혹”을 감지한다. 이런 접근을 받는 일 자체가 방금 전 헤어졌던 찰스(Charles)처럼 공적 직책을 맡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격 떨어지는

10) Malcolm Bradbury, “Coming Out of the Fifti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29:2 (1983) 182면.

11) 이 소설의 다른 등장인물로부터 “Wife of Bath”(65면)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 인물은 흔히 지적되는 디킨즈 소설의 영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윌슨은 디킨즈의 전기를 쓰기도 했는데, 그의 소설에 나타난 디킨즈적 풍성함과 그로테스크함에 관한 언급으로는 Bradbury, 앞의 글 183면 참조.

12) Jay L. Halio, “The Novels of Angus Wilson,” *Modern Fiction Studies* 8 (1962) 171면.



일”(second-rateness)라고 느끼던 그는 다음 순간 길거리 매춘(importuning) 혐의로 청년을 체포한 경찰로부터 혹시 증언해줄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107-8면). 버나드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잡혀가는 그 청년을 보며 충격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버나드를 얼어붙게 만든 건 동정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그 청년의 얼굴에서 절망적인 공포를 볼 때 느꼈던 강렬하고 격렬한 흥분, 한때 자신만만하던 인간이 무너지기를 잠자코 기다리며 자신이 느꼈던 긴장감을 기억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 순간 그는 사냥감을 죽이는 사냥개 무리에 합류할 태세였다. 형사를 향해 돌아섰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가학적인 흥분은 일반적인 억거움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렇게 정신이 번득 들게 만든 건 무엇이었나, 그는 자문했고, 끔찍하게도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답은, 다소 거들먹거리면서도 일상적 의무를 행한다는 형사의 태도에 그는 그가 느낀 사냥꾼의 스타일에 호응하는 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정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과는 안 맞는 게 사실이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휴머니스트라는 사람이 체찍과 곤봉을 휘두르는 사람들과 더 편한 것 같았다. (109면)

‘정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과 안 맞는 게 사실이었다’는 자조적 토로는 그가 직전에 찰스와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천성적으로 무정부적”이라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는 특히 편치가 않고”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고 밝힌 것에 이어지는 대목이다(105면). 더욱이 그는 청년의 접근을 찰스라면 꺾지 않을 ‘격 떨어지는 일’로 보면서도 대신 “찰스와는 달리 나는 내 상상력을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으며 찰스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더 아래의 “이 고여 있는 작은 물웅덩이들”이야말로 찰스가 우려하는 히틀러 같은 “악귀들”(bogies)의 “연무와 수증기가 솟아나는” 곳이라며 내심 자신의 입지를 정당화하던 참이었다(108면).

이 사건이 함축하는 바는 매우 세심한 분석을 요구하는데, 일단 버나드 자신은 그가 경험한 충격적인 자각을 “휴머니즘의 실패”(204면)로 ‘재현’하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가능성”(205면)을 갖는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인다. 버나드에게 이와 같은 자기재현은 정신적 패배와 무력감과 더불어 심각한 육체적 질환까지 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승리’의 화룡점점이어야 할 바든 홀 개장 기념행사에서 공적 발언으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내부 독백”(170면) 같은 연설을 통해 어떻게든 자신의 고투에 의미를 부여하려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역시 실패를 재차 증언하는 데 그친다.

버나드의 실패한 연설은 그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일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이다. 그는 바든 홀 기획이 갖는 여하한 사회적·문화적 의의를 말하는 대신, “이 새로운 바든 홀의 시작으로 이르게 한 동기들”이라는 주제를 계속 맴돌면서 “동기들이란 너무 어렵고 너무 양면적”이라거나 “실패가 기만보다 나으며, 동기가 잘못된 승리보다는 패배가 낫다”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고(154면), 급기야 “저항과 힘만을 신뢰하는 문화는 살아남을 수 없고” “스스로의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는 진짜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154면). 하지만 실패와 패배와 타락을 인정함으로써 더 ‘진정한’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 반전의 시도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버나드 자신도 온전히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었음은 그가 끝내 무력감을 떨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데서 알 수 있다.

버나드의 자각이 갖는 냉철함과 그가 겪는 시련의 강도 면에서 본다면 앵거스 윌슨이 소설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보았고 따라서 개인과 사회라는 대립구도를 설정한 채 개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영국 소설의 자유주의 전통을 그저 반복한다는 평가는 분명 일면적이다.<sup>13)</sup> 부인

13) 이런 평가를 대표하는 버나드 버건지(Bernard Bergonzi)의 견해에 관해서는 Halio, 같은 글 47면 참조.

엘라(Ella)와 찰스의 일정한 수습과 계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정직성이나 소설적 성취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버나드의 패배와 죽음은 여하한의 영웅적인 것으로 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독을 마신 ‘이후’가 버나드의 “사회적 비전의 연속성에 믿음이 놓이는” 쪽으로 귀결된다는 평가<sup>14)</sup> 역시 결말의 기조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버나드의 ‘사회적 비전’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될 만큼 견고하지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독을 마신 후』가 “후기 자유주의 소설”이며 “자유주의 휴머니즘을 하나의 잠재성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그것의 역사적 조건과 결정인자와 한계를 보는 소설”이라는 브렛베리의 평가가 한결 균형 잡힌 것으로 보인다.<sup>15)</sup> 그러나 이때도 역시 궁극적인 문제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잠재성과 한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점이다.

그 점을 살피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이 무엇인지부터 질문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소설에서 그 ‘대표자’로 제시된 버나드의 자질에 그 특징이 잘 응축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악의 문제에 대한 몰두”(53면), 곧 도덕적인 관심으로 표현된다. 경박함이나 허세와는 거리가 먼 버나드가 커리부인을 이긴 데서 다소 지나치다 싶은 만족을 느끼는 이유도 이를 근본적으로 악에 대한 도덕의 승리로 보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찰스와의 대비에서 드러나지만 사적인 삶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 또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버나드에게 내면의 동기가 그토록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 스스로 밝힌 ‘무정부적’ 성향은 엄밀히 무정부주의적이기보다는 관습과 권위에 대한 거리 혹은 저항

14) Dominic Head,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Modern British Fiction, 1950-2000* (Cambridge: Cambridge UP, 2002) 20면. 헤드의 평가는 이 소설에서 “일순이 폭로하고자 한 것이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환상에 불과한 일관성’”(19면)이라는 그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체의 일관성이 환상임을 인정한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잠재성은 여전히 신뢰할 여지가 생긴다.

15) Malcolm Bradbury, 앞의 글 183면.

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텐데 이 역시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중요한 일부다. 거기에 더하여 여동생 이소벨(Isobel)에게 보낸 버나드의 마지막 편지에 피력된 “억압받는 자, 약자, 그리고 부적응자의 편에 서는 것”(220면)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이렇게 악에 맞서는 도덕, 관습이나 권위에 대비되는 사적 자유, 약자 편에 서기 등에 대한 강조로 버나드의 자유주의 휴머니즘을 요약해보면 레스터광장에서 얻은 자기인식이 그에게 그토록 치명적으로 작용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소설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결정타’ 말고도 버나드에 대한 풍자 혹은 아이러니 섞인 진술들이 매우 우회적인 형식으로 드문드문 산재한다. 소설 도입부에 나오는 “당당한 원로 문인”(Grand Old Man of Letters)이자 “당당한 양팡 테리블”(Grand Enfant Terrible)이라는 얼핏 모순된 소개(9면)도 그중 하나이다. “권위가 주는 즐거움은 누리면서도 그 대가는 치르지 않는다”(106면)는 찰스의 비판을 예고하는 이런 묘사는 권위도 원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이미지도 원하는 버나드의 착종된 욕망의 일단을 드러낸다. 당국의 지원은 지원대로 얻어내면서 바든 홀을 ‘무정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의 모순적인 포부도 마찬가지다. 비록 보수성향의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아들 제임스(James)가 버나드의 태도를 “현학적인 척하며 남 괴롭히기”(pedantic bullying, 21면)라 보는 데도 일말의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버나드가 가족을 포함해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신경증에 시달리는 엘라가 자신에게 “하나의 수동적인 대상”(a passive object, 63면)이었다는 자각이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실패했고 책임이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애정 대신에 분별력을 주려했다는 인정은 사실 광장 사건에 버금가는 무게를 가져 마땅해보인다. 부도덕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테런스의 행보를 두려워할 뿐 그 선택을 이해하지는 못한다거나 현재 연인관계인 청년 에릭(Eric)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도 그의 절박함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아, 버나드에게는 ‘사

적 이익’에 대한 도덕적 반감이 앞설 뿐 돈이나 계층 문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감각이 사실상 부족하다.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런 결함들은 버나드 자신에게 심각한 자기성찰이나 비판의 주제로 채택되지 않으며 소설 전체로 보아도 잠시 표면에 떠오를 뿐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휴머니스트 지식인으로서 버나드에게 어떤 특이성을 찾는다면 그의 동성애를 들 수 있다. 1950년대 영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처벌 가능한 범죄였고, 그와 관련된 담론은 대체로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동성애에 ‘악’의 낙인을 찍고 있었음을 감안하면,<sup>16)</sup> 이 소설이 동성애에 취하는 태도는 상당히 의식적인 제스처로 보아야 한다. 커리부인 같은 인물이 버나드의 동성애를 추문으로 확대할 모략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주요 당사자라 할 버나드 자신과 엘라, 테런스, 에릭 등을 비롯한 대부분 인물들은 동성애를 ‘악’으로 지목하는 당대의 세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윌슨 자신은 동성애법 개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동성애 논쟁에 활발히 개입한 바 있으며 이 작품을 두고 “당시 내가 갈 수 있었던 최대치였는데 나는 처음부터 동성애적 삶을 공동체와 더불어 있게 만들고자 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sup>17)</sup> 말하자면 동성애를 사회적 삶의 자연스런 일부로 다루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당대의 관습을 거스르고자 했던 것인데, 레스터 광장 사건에서 동성애를 가시적 일부로 들여오기도 이를 ‘문제’로서 다루지 않는 점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하지만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청년의 자신만만함이 깨어지는 순간에 버나드가 그토록 강렬한 스타일을 느낀 이유가 그 청년이 자신에게

16) Allan Hepburn, “Writing Queer Rights: Angus Wilso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Novel,” *Critical Quarterly* 56:4 (2014) 83면. 상호 동의에 의한 성인들 사이의 사적인 동성애가 더는 범죄로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는 공식 권고가 나온 것은 1957년에 가서였다.

17) Angus Wilson, “Bad Old Times,” *Angus Wilson Papers* (University of Iowa Libraries: Iowa). Allan Hepburn, 같은 글 86면에서 재인용.

‘성적 접근’을 시도했었다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버나드의 ‘억압된 죄의식’이 일깨워진”<sup>18)</sup>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적어도 버나드의 격렬한 반응이 성애가 함축하는 친밀한 사적 영역을 침입한 것에 특히 반발한 결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버나드는 이런 점을 자신의 휴머니즘의 실패로서 재현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버나드의 ‘재현하지 않음’이 소설에서 비판적으로 재현되지도 않는다. ‘격 떨어짐’이라는 표현에 함축된 버나드와 청년의 계층적 차이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버나드 자신이 꼬집고 있는바 휴머니스트가 ‘정상적인 권위의 행사’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채찍과 곤봉을 휘두르는 일’을 더 편히 여긴다는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배경을 감안할 때 자유주의 휴머니즘과 파시즘, 더 정확히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이 왜 파시즘 앞에서 무력했는가라는 역사적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하지만 버나드는 이를 내면 동기의 도덕성이라는 (공적 영역과 분리된 사적 개인에 방점을 둔) 순전히 자유주의 휴머니즘적인 틀로 다시 회수해버리며, 소설 전체는 이 회수를 중대한 실패로 비판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1950년대의 예술을 개괄하며 “모든 방면에서 영국적 사유와 예술적 노력은 내부를 응시하고, 겉으로 보기에 대륙의 지식인들을 괴롭히던 큼직한 문제들, 곧 실존주의와 사회참여, 스탈린 독재가 맑스주의적 신념에 제기한 도전, 현대 세계의 요구에 조율된 기독교의 가능성 같은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sup>19)</sup>고 한 아서 마윅(Arthur Marwick)의 언급을 떠올리게 된다. 『독을 마신 후』가 보여주는 이런 특성은 월슨의 소설에서 “진짜 이슈는 전후 영국의 사회적 삶의 (상대적으로) 극적이지 않은 성격이며, 이는 가령 남미나 남아프리카에서 성취된, 불안정하거나 극단적인 정치 체제들과 연관된 강렬한 종류의 소설적 담론을 촉발하지 않는다”<sup>20)</sup>는 지적과

18) Allan Hepburn, 같은 글 90면.

19) Arthur Marwick, 앞의 책 72면.

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독을 마신 후』가 주는 재미는 겉보기에 극적이랄 것 없는 사회적 삶과 인물들의 내면을 조밀하게 그려내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소설 자체가 보여주는바 극적이지 않은 삶과 내면 역시 깊이 파고들수록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사상적인 ‘끔직한’ 질문들과 실제로 이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버나드의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실패는 무엇보다 실패를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틀에서만 다룬다는 점이다. 삶의 다양한 양상을 잘라낸 채 사적 영역으로 입지를 좁힌 휴머니즘은 내면의 성찰 이외의 문제에 무감각하고 이는 결국 내면의 문제조차 적절히 사유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이 결국 ‘재현하기’의 문제임은 분명하다. 버나드가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실패를 재현하는 방식 자체가 그의 실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지식인 버나드의 재현 실패를 실패로서 다루지 못한 것이야말로 그 나름으로 흥미로운 이 소설의 재현 실패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두 겹의 재현 실패로부터 1950년대 영국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한계는 한층 생생하게 감지되며, 그것은 다시 파시즘을 비롯하여 현대 문명이 제기하는 온갖 도전에 도무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한 자유주의 휴머니즘 일반의 역사적 무기력을 강력하게 환기한다.

### 3. 『히스토리 맨』: 역사와 ‘동기화’한 급진적 지식인

『독을 마신 후』의 버나드가 고대 지식인 소크라테스를 변주한 인물이라면, 『히스토리 맨』의 주인공이자 (자유주의 따위는 반동으로 여기는) 급진적 지식인 하워드 커크(Howard Kirk)는 헤겔과 여러모로 관련이 깊다. 소설 앞에 붙은 제사(題詞)부터 헤겔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인류

20) Dominic Head, 앞의 책 21면.

에게 역사라는 형(刑)을 선고한 인물”(Someone who sentenced mankind to history)이라 답하는 귄터 그라스(Günter Grass)의 인용으로 되어있거니와, 헤겔은 역사의 필연적 진보라는 관념과 긴밀히 연관된 인물이고 하워드로 말하자면 역사의 필연적 진보를 곧장 자기 삶과 ‘동기화’(同期化)하려는 ‘히스토리 맨’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1972년 워터마우스대학(University of Watermouth)이라는 가상의 대학을 배경으로 “새로운 사람들”(new people)이자 “삶을 온전히 누리는 시민”(full citizens of life)으로서 “역사적 권리”(historical rights)를 당당히 주장하는(18면), 한마디로 ‘잘 나가는’ 하워드와 바바리(Barbara) 커크 부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체로 5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포괄하는 장기 60년대라는 지칭은 일차적으로 68혁명으로 대표되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회운동과 문화혁명의 양상들을 전경화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 당시는 또한 ‘풍요사회’의 특징들이 뚜렷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영국은 50년대의 내핍에서 벗어나 임금 상승과 더불어 슈퍼마켓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광고가 중요해지는 등 소비사회로의 진입을 본격화했다. 대중문화가 발전하고 청년들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형성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양상도 빚어졌으며 낙태(의 일부)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교육내용도 한층 발달해짐에 따라 영국사회는 비로소 “많은 면에서 빅토리아시대의 따분함과 순응성”을 벗어나게 되었다.<sup>21)</sup> 한편, 원체 “계급구분의 소멸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는” 영국사회에서 특별히 강한 공동체 전통을 가진 노동계급이 새로이 담론 주제가 되기도 했고 1960년에 *New Left Review*가 간행되는 등 좌파 지식계가 활력을 회복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1968년의 학생운동은 대체로 온건했고 “내용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모방”하는 데 그쳤으며, 이 시기 동안 영국은 “대체로 여전히 사회적 결속력이 잘 유지”되는 사회였다.<sup>22)</sup>

21) Arthur Marwick, 앞의 책 123면. 이 단락 전반의 내용 역시 이 책 2부 “Roads to Freedom 1958-73”을 참조한 것이다.



이런 대략적인 시대상에 비하면 『히스토리 맨』이 전달하는 급진적 분위기는 자못 극단적일 뿐 아니라 극단성 자체가 캐리커처화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여기에는 작품의 배경이 대학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전후의 교육개혁으로 대학 진학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옥스브리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대학과는 다른 분위기의 새로운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래, 영국에서는 대학을 배경으로 한 이른바 '대학소설'(academic novel 혹은 campus novel)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이 소설의 흥미로운 소재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인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이 독특한 사회적 중요성을 띠어야 한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영국에서 대학소설이 성공한 이유를 “지식인에 대한 영국적인 태도”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지식인들이 일상을 위협할지 모를 막연하게 불길한 비순응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일상과 무관한 쓸모없는 추상을 붙잡고 있는 한심한 존재들이라는, 한 마디로 “전복적이면서 쓰잘머리 없는”(subversive and superfluous) 인간들로 지식인을 보는 관점이 중산층적 삶에 대한 비판과 믿음을 스펙트럼으로 삼는 소설 장르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sup>23)</sup> 『히스토리 맨』의 극단성 역시 이런 지식인 이미지와 연결되지만, 다른 한편 소설의 배경인 장기 60년대 문화혁명에서의 ‘혁명’ 자체가 사회 전반의 변화와 보조를 맞춘 것이기 보다 오히려 그 변화와 시차가 맞지 않는 데서 만들어진 지칭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도 극단적이었던 이 혁명이 지식인,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대학은 각별히 흥미로운 공간이다. 배경이 된 워터하우스대학을 가리켜 설립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10년간 ... 사실상 근대 세계의 산업화 과정 전체를 재연했다”(63면)고 묘사한 소설의 한 대목을 참조하면 대학은 사회적 변화의 압축본으로서의 대표성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22) 같은 책 124면, 140면.

23) Terry Eagleton, “The Silences of David Lodge,” *New Left Review* 172 (1988) 93면.

소설 전반부에 빠르게 요약되어 있는 커크 부부, 특히 하워드의 성장담은 대학의 성장과 긴밀히 조응한다. “상층노동계급 겸 하층중산계급”(18면) 출신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막 생겨나기 시작한 신생대학에 복지국가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진학, 역시 노력을 발판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사회학과 교수직을 따냈다는 하워드의 전사(前史)는, 대학소설이 실은 “계층상승의 환치되고 가장된 버전”이며 대학은 “복지국가 일반의 비유”라는 지적이나<sup>25)</sup> 이 소설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중산층의 확장과 출현에 관한 것”이라는 언급<sup>26)</sup>이 갖는 일정한 타당성을 확인해준다. 하지만 하워드를 진정 성공한 명사로 만들어준 것은 60년대 지적·문화적 변화와 유행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감지하고 그것들과 자기 삶을 일체화하는 데, 다시 말해 ‘히스토리 맨’이 되는 데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대가 바로 우리가 있는 곳”(16면)이라거나 “운동과 함께, 시대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33면)거나 “역사의 플롯”이 인물들의 삶을 구성한다(106면)는 등등, 그와 같은 ‘동기화’를 향한 하워드의 욕망과 설교는 이 소설에 무수하게 등장한다.

하워드에게는 역사 혹은 시대와의 동기화 자체가 시대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바다. 시대정신과 함께 하라는 것이 곧 시대정신이며 트렌드에 따르는 것이 곧 트렌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워드가 쓴 책 제목 ‘프라이버시의 패배’(The Defeat of Privacy)는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 책을

24)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대학 내부의 비윤리성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주된 기조로 삼는 “대학소설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저항”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의 압축본으로서의 대학을 비판하는 것이 곧 사회 비판이 되기 때문이다. Kenneth Womack, *Postwar Academic Fiction: Satire, Ethics, Community* (New York: Palgrave, 2002) 19면.

25) Bruce Robbins, “What the Porter Saw: On the Academic Novel,” *A Concise Companion to Contemporary British Fiction*, ed. James F. English (Malden: Blackwell, 2006) 257면.

26) Phil Tew, *The Contemporary British Novel* (London: Continuum, 2004) 68면.

“더는 사적 자아도, 사회 속의 사적인 외딴 곳도, 사적인 재산도, 사적인 행위도 없다는 사실을 다룬 책”으로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시대를 묘사한다.

인류는 모든 것을 개방하고 접근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 이제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해가 인간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제공해주고 민주주의 사회가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 접근권을 제공해주고 있지. 맞서 대면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은 감추어진 것도, 영혼의 어떤 신비한 어두운 공간도 없지. (73면)

내적 동기의 순수성 문제로 그토록 고민했던 『독을 마신 후』의 버나드 샌즈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실상 거기서도 소비에트를 비판했다고 버나드를 몰아세우고 버나드의 죽음 이후 교수직을 그만두겠다는 이소벨에게 “당신은 정말 개인적인 면을 많이 믿는군요”(239면)라고 비꼰 젊은 대학강사 루이 랜들(Louie Randall)이 하워드 의 등장을 어렵פות이 예고한 바 있다. 하워드의 시선에 버나드 같은 이들이 어떻게 비칠지는 하워드의 동료이면서 자유주의적 태도가 상당히 남아있는 헨리(Henry)와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나라에 가치 있는 삶의 유산도 있”으며 “다툼에서 물러나 약간 떨어져있는 것이 무슨 문제겠냐”는 헨리의 말을 하워드는 “부르주아 정신”이며 “도피적인 무사안일주의”로 단호히 일축한다(40면).

‘히스토리 맨’을 자부하는 하워드에게 그가 신봉하는 맑스주의적 역사의 필연성이란 곧 그 자신의 승리의 필연성이 아닐 수 없는데, 그는 마오주의나 맑스레닌주의 그룹 등 급진파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누구보다 적극 참여하여 자본주의의 필연적이고 임박한 몰락과 무장투쟁에 관해 발언하는 한편, 수업에서도 “신체적 공격을 닦은”(66면) 교수법을 남달리 적용한 일종의 사상투쟁을 벌이며 학생들에게 부르주아적이라거나

인종주의적이라거나 파시즘적이라는 딱지를 남발한다. 학교 당국이 인종주의자로 비칠 법한 인물을 초청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만들어 논란을 부르고 반대투쟁을 촉발하는 등, 때로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안에 대한 분란을 교묘히 조장함으로써 급진적 지식인 ‘투스’ 이미지를 계속해서 재생산한다.

『독을 마신 후』가 지식인 버나드를 일정하게 비판적으로 재현하면서도 그의 자기비판의 진정성과 의의를 인정해주었던 데 비해, 『히스토리 맨』은 하워드에게 남다른 순발력과 센스, 지적·성적 에너지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풍기는 매력을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하자가 많은 인물로서 그를 명백히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다.<sup>27)</sup> 그가 황폐한 재개발구역의 비어있던 건물을 “재산처럼 보이지 않는 재산”(unpropertylike property, 42면)으로 교묘히 손에 넣음으로써 부르주아라는 비판을 슬쩍 피해가는 것, 허물없는 ‘동지적’ 관계라는 형식으로 대학원생들을 사실상의 가사도우미로 활용하는 것, 부인 바바리나 친구 헨리마저 자기보다 잘 나가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당히 불행한 상태이기를 바라는 것 등등, 이 매끈하고도 교묘한 ‘히스토리 맨’의 이면에는 버나드 샌즈가 동기의 불순함을 고뇌했을 ‘사적인 외판 곳’들이 줄줄이 배치되어 있다. 요컨대 “새로운 시대의 마키아벨리적 산물”<sup>28)</sup>이라는 묘사가 썩 적절한 인물인 것이다.

그의 ‘마키아벨리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자신의 수업을 듣던

27) 하워드가 가진 일정한 ‘매력’은 그가 이 서사에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 “가장 충실하게 실현된 복합적인 인물”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면도 있다. 로버트 모리스는 그를 가리켜 “완전히 비인간화된 히스토리 맨이자 완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특정 시대의 산물”로서 혐오스러우면서도 매력이 있으며 사악하지만 카리스마도 있는 인물이라고 묘사한다. Robert A. Morace, *The Dialogic Novels of Malcolm Bradbury and David Lodge* (Carbondale: Souther Illinois UP, 1989) 65면.

28) Elaine Showalter, *Faculty Towers: The Academic Novel and Its Discontent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5) 59면.

학생 조지 카모디(George Carmody)와의 충돌이다. 하워드의 공격적인 교수법으로 수업을 듣던 다른 모든 학생들은 변했으나 고지식하면서도 그 나름으로 성실한 조지만큼은 요지부동인데 이를 하워드는 “일종의 역사적 범죄”(a kind of historical offence, 131면)로 받아들인다. 하워드와의 개인 면담에서 토로한 바에 따르면 조지는 “집단이 아닌 개인주의를 믿고” “인간을 생산 연쇄의 한 단위로 보는 원가 회계적인, 맑스주의적인 관점이 싫으며” “상부구조가 하부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138면).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면 일말의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 조지의 기대와 달리 이런 토로는 하워드에게 범죄 사실의 인정에 다를 바 없었으므로 그는 조지에게 낙제점을 주고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에 조지가 모든 페이지에 대한 재심을 학교 당국에 요구하는 반격을 가하면서 하워드에게도 비로소 심각한 위기가 오는가 싶지만, 시대의 총아답게 그는 조지를 파시스트로 몰아 다시 승리할 뿐 아니라 “카모디의 박해에 희생된 순교자”(martyr of Camodian persecution 218면)라는 후광을 더한 채 호시탐탐 노려오던, 조지를 일부 지원했던 동료 교수 캘린더(Callendar)와의 정사에도 성공한다.

역사적 요구라는 대의 안에 교묘히 은폐된 하워드의 결함들은 일단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분류하더라도, 그리고 동료와 학생을 망라하며 그가 누리는 성적 향락 역시 “역사의 플롯에 대한 맑스주의적 확신과 역행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리비도적인 욕망”<sup>29)</sup>이기보다 60년대 문화혁명의 다분히 일반적인 양상이라 쳐도, 역사와의 동기화를 부르짖는 그가 실제로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는 ‘히스토리 맨’으로서 또 급진적 맑스주의 지식인으로서의 하워드를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그의 책이나 조지 카모디 사건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맑스주의자로서 그의 인식은 역사적 필연성의 확신이라는 목적론적 역

29) 같은 책 27면.

사관과 하부구조의 선차성이라는 경제적 결정론을 맹신하는 이른바 교조적인 ‘속류 맑스주의’의 특징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실제로 중요한 관심사는 맑스주의적 계급투쟁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도 아닌, 성(性)문화 및 사적 영역의 변화라는 매우 ‘상부구조적인’ 주제이다. 이 시기까지로 한정하더라도 서구 맑스주의 일반이 이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영국 맑스주의 전통으로 보아도 하워드를 대표적 형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히스토리 맨』의 풍자는 너무 손쉬운 인물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도리어 비판의 강도가 반감되는 것일까. 그러나 비록 극단적일망정 하워드는 이 시대를 실제로 대표하는 면이 있다. 그를 살아있는 인물로, 더욱이 상당한 매력을 가진 인물로 형상화한 이 소설 자체가 입증해 주듯이, 하워드의 단순성과 극단성은 오히려 그에게 생생한 실감을 부여 해주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 60년대의 ‘혁명’이 실제로 어떤 극단성 혹은 단순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미닉 헤드(Dominic Head)는 장기 60년대가 가졌던 두 가지 가정이 특히 소설가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끌었다고 보면서, 하나는 성적 자유가 “개인적인 관계와 표현 양식에 있어서 새로운 솔직성, 개방성, 정직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와 위계에 대한 도전이 전복을 완성하고 그럼으로써 “백인 상류층, 중산계급, 남편, 아버지, 남성 일반의 권위를 대체”하리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한다. 헤드에 따르면 『히스토리 맨』이 전후의 세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풍자의 하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가정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sup>30)</sup>

그런데 문화혁명 차원이 아니라 맑스주의적 역사관에 초점을 맞추면 하워드의 시대 재현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 하워드에게 역사의 필연성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의 필연적 패배만이 아니라, 아니 그보

30) 같은 책 26면.

다 더 중요하게는,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요구이다. 그 자신의 계층상승에서 한층 탄력을 받았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상황은 변하고 있고 전 세계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더 많은 것을 주장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혁명을 겪으며 스스로를 해방하는 전환기에 있”으므로 “우리도 변해야만 하는”(24면) 것이 하나의 ‘정언명령’이 된다. 변화와 성장이 그에게 원천적인 요구이자 감각이라는 사실은 그가 헨리와 캘린다와의 (상대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구사하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데서 확인된다. 하워드스는 헨리에게 이혼을 설득하면서 “당신들은 성장할 수 없어, 확장할 수 없어, 서로를 발전하게 할 수 없어, 시대의 바깥에서, 역사의 바깥에서, 거기 그 작은 동지에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능성을 놓치는 거지”(170면)라는 논리를 펼치고, 캘린다를 무장해제 시킬 때도 “성장하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자기를 방어”(212면)해서야 되겠느냐고 설득한다. 대학 캠퍼스를 일별할 때 받게 되는 “생산성 높고 24시간 돌아가는 지적 공장의 이미지”(165면) 역시 그에게 지극히 바람직한 것일 따름이다.

성장과 발전의 이념은 실상 맑스주의의 핵심도 전유물도 아니며 이 ‘히스토리 맨’은 시대와 역사가 요구한다면 맑스주의에서 벗어나 ‘성장’할 태세가 언제든 되어 있어 보인다. 그의 책을 두고 바바러가 던지는 비아냥처럼 그는 ‘정치적’이기보다 그저 ‘트렌디’하며(33면) 그가 말하는 역사란 결국 그때그때의 유행에 무한히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 60년대가 저물면서 70년대 후반에 등장한 것이 바로 새처주의(Thatcherism)였고 새처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야말로 성장과 발전과 자유를 기치로 내걸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하워드라는 ‘히스토리 맨’은 전후 복지국가의 틀을 무참히 깨뜨리면서 ‘사회’도 없고 (역사적) ‘대안’도 없음을 주창한 새처주의로 직진한, 영국 현대사의 그 ‘필연적’ 전개를 막을 힘이 없을 뿐 아니라 막을 생각도 없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어쩌면 이 자명성이야말로 하워드라는 ‘지식인의 재현’이 자기도 모르게 함축한 역사적

통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자유주의 대(對) 급진주의’라는 폐쇄 회로

‘재현하는 인물’이라는 싸이드의 지식인 논의로 돌아가면, 버나드 샌즈나 하워드 커크는 둘 다 ‘재현하기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한층 분명히 자신의 이념과 대의를 발신했고 그럼으로써 그 이념과 대의가 갖는 한계 역시 명확히 드러내준다. 그들의 재현이 자기재현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살았던 시대 영국사회에 대한 중요한 재현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자기 시대의 명사(名士)라는 점도 작용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전후 복지국가 정착기와 장기 60년대에서 지식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던 덕이기도 하다. 두 작품의 배경이 모두 진보적인 시기로 분류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 적어도 이념과 대의의 재현 자체가 존중되는 세계였던 것이다.

한편, 『독을 마신 후』와 『히스토리 맨』을 병치할 때 각각의 소설이 보여주는 어떤 것들은 더 선명해지지만 또 어떤 것들은 더 모호해지기도 한다. 앞서 버나드가 수행하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자기재현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경험이 자유주의 휴머니즘에 제기한 질문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음을 한계로 살핀 바 있다. 그리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측면들을 잘라낸 채 사태를 내면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이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내적 곤경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출구를 봉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히스토리 맨』으로 오면 버나드 유형의 지식인은 부르주아적 반동이거나 도피적인 순응주의자로 치부되며 하워드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자유주의 휴머니스트의 현실적 패배를 입증해주는 듯하다. 그렇게 본다면 두 작품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하워드라는 급진적 지식인을 여지없이 풍자함으로써 『히스토리 맨』은 버나드 같



은 이가 갖는 상대적 미덕을 상기시키고 ‘대의나 이념’이라는 면에서 그를 오히려 복권시킬 가능성도 열어주는 듯 보인다. 이 소설을 통해 브렛 베리가 간접적으로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히스토리 맨』이 “위협에 처한 자유주의”를 그리고 있다는 로버트 모레이스(Robert Morace)의 진술도 이와 연관될 것인데, 모레이스 자신은 이 소설이 “브렛베리의 가장 대화적인 소설”로서 자유주의나 비자유주의(illiberalism) 어느 한 쪽에 결정적으로 기울지 않고 “개인주의가 재구축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면서도 확정적인 답은 주지 않는다고 평가한다.<sup>31)</sup> 하지만 어느 편을 해답으로 보는가가 아니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가가 중요하다. ‘대화적’이라 해도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대화를 시도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히스토리 맨』이 가정하는 대화의 상대가 여전히 자유주의라면 그 사실 자체가 이 소설이 여전히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버나드라면 분명 ‘히스토리 맨’이 노정한 여러 도덕적 결함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는 하워드식 급진주의에 대항할 만한 ‘재현적’ 힘을 갖지 못하며 무엇보다 자체의 내적 곤경을 해소하지 못한다. 반면 하워드라면 버나드를 괴롭힌 내적 동기의 늪에서 간단히 탈출하여 더 ‘끔찍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대면할 것이지만 그 문제들을 매우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재현함으로써 사실상 또 다른 방식으로 외면할 길을 열어둔다. 그런 점에서 버나드와 하워드는 분명 어떤 대척점을 형성하지만 각자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상대에게 답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자유주의 대(對) (반자유주의로서의) 급진주의라는 구도는 그 자체로 폐쇄회로라는 것, 그 사실이야말로 『독을 마신 후』와 『히스토리 맨』의 병치가 가장 확실히 재현해주는 바이다. 자유주의든 급

31) Robert A. Morace, 앞의 책 61, 75, 85면.

진주의든 영국사회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경험한 한국에서 대체로 급진주의는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억압되는 반면 ‘진짜’ 자유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종종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출되곤 한다. 하지만 두 소설이 보여주듯이 내적 곤경이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넘지 못할 프레임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야말로 ‘대안’으로서의 이념과 대의가 돌파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 참고문헌

이성재(2012), 『Vita Activa 개념사: 지식인』. 책세상.

- Bradbury, Malcolm (1985), *The History Man*. London: Penguin.
- \_\_\_\_\_ (1983), “Coming Out of the Fifti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29:2, 179-189.
- Davies, Alistair and Peter Saunders (1983), “Literature, Politics and Society.” *Society and Literature 1945-1970*. Ed. Alan Sinfield. London: Methuen, 13-50.
- Eagleton, Terry (1988), “The Silences of David Lodge.” *New Left Review* 172: 93-102.
- English, James F. (1994), *Comic Transactions: Literature, Humor and the Politics of Community in Twentieth-Century Britain*. Ithaca: Cornell UP.
- Halio, Jay L. (1962), “The Novels of Angus Wilson.” *Modern Fiction Studies* 8, 171-181.
- Head, Dominic (2002),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Modern British Fiction, 1950-2000*. Cambridge: Cambridge UP.
- Hepburn, Allan (2014), “Writing Queer Rights: Angus Wilso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Novel.” *Critical Quarterly* 56:4, 83-98.
- Marwick, Arthur (2003), *British Society Since 1945*. London: Penguin.
- Marace, Robert A. (1989), *The Dialogic Novels of Malcolm Bradbury and David Lodge*. Carbondale: Souther Illinois UP.
- Riddell, Edwin (1972), “The Humanist Character in Angus Wilson.” *English: Journal of the English Association* 21, 45-53.
- Robbins, Bruce (2006), “What the Porter Saw: On the Academic Novel.” *A Concise Companion to Contemporary British Fiction*. Ed. James F. English. Malden: Blackwell.
- Said, Edward (1996),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The 1993 Reith Lectures*. New York: Vintage.

- Showalter, Elaine (2005), *Faculty Towers: The Academic Nove and Its Discontents*. Philadelphia: U of Pennsyvania P.
- Tew, Phil (2004), *The Contemporary British Novel*. London: Continuum.
- Wilson, Angus (1992), *Hemlock and After*. London: Penguin.
- Womack, Kenneth (2002), *Postwar Academic Fiction: Satire, Ethics, Community*. New York: Palgrave.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5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월 29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월 31일

ABSTRACT

---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in  
Post-War British Novels:  
*Hemlock and After* and *The History Man*

Hwang, Jung-A\*

According to Edward Said’s characterization of the intellectual as “a representative figure,” intellectuals are the ones who could represent their own causes and ideas and also whose self-representations could represent the principal aspects of their times.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post-war British society, focusing on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in two post-war British novels, *Hemlock and After* and *The History Man*. Set in the 1950s when the welfare state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post-war social consensus, *Hemlock and After* portrays Bernard Sands, a “Grand Old Man of Letters”, and his self-representation. Bernard senses and admits a profound failure in his life as an intellectual. He, however, could not recognize an even more serious failure in his self-representation, which ultimately implies the inherent predicament and limit of liberal humanism itself. *The History Man*, on the other hand, is basically a pungent satire of a radical intellectual who aspires to synchronize with History, and thus provides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social changes and “cultural rev-

---

\* HK Professor,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olutions” of the Long Sixties. Comparing these two novels would effectively demonstrate the transformations of British society between the two periods, and also make it clear that the frame of “liberalism (as anti-radicalism) vs. radicalism (as anti-liberalism)” only leads to an intellectual impasse.